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광고를 선정하는 제20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이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창조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을 비롯, 이순동 한국광고협회 회장, 여정성 아시아 소비자경제학회 회장, 김상훈 한국광고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서범석 세명대 교수 등 광고계 인사와 심사위원단, 수상자 및 하객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인식 고양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1993년 이 상을 제정했다.



- 1
- 2

① 수상자 기념촬영
② 대상 및 장관상 수상자들 기념촬영 (좌부터 차례로)
최종원 대흥기획 대표, 이재혁 롯데칠성음료 대표, 조용만 두산그룹 전무, 문종훈 SK마케팅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중수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상국 LG 무사장, 이현중 HSB 드 CCO, 박만호 오리콤 상무

심사소감



심사소감을 발표하는 유창조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415편의 출품작 가운데 총 32편의 작품을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은 진정성입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크리에이티브 수준 향상으로 우리나라 광고는 세계적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광고의 본질은 소비자가 브랜드와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성에 있다고 봅니다.

광고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 소비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든 광고인가,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가운데 크리에이티브와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광고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통과 나눔, 지속가능한 발전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차별 개선, 지구 환경 보존,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미래지향적 메시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은 소비자의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첨단기술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광고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100명의 소비자심사단을 비롯한 모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단단히 엮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유창조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제품과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광고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한 심사로 국민적 신뢰를 쌓아온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광고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전파하는 광고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케이팝(K-pop)에 이은 신한류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20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



③ 인사말을 전하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④ 축사를 전하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